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월 16일 (제113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죄짓지 말라

올해 첫 주일, 나는 예배 전 방송실에서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 말했다. “올해 잘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둘째로 너 자신에게 죄를 짓지 말고, 셋째로 남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불효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듯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한다. 사무엘상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삼상15:23)라고 말씀하고 있다. 죄를 의인화하면 마귀요, 귀신이다. 곧 불순종은 마귀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다. 아담이, 사울이, 삼손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귀에 잡힌바 되지 않았던가.

나는 송구영신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Yes, Sir” 하라고, 그러면 복이 온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라. ‘순종하면’이란 단서가 있고, 후에 축복을 말씀하셨음을. ‘나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지요, 자신 학대다. 담배를 피우고, 술이나 마약을 하고, 나쁜 곳을 찾다니고, 추한 짓을 하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또 아무 노력도, 공부도 하지 않는 것도 자신을 방치하는 큰 죄다.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죄를 짓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롬13:10)라고 말씀하신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이다. 성경에도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히13:3)고 하셨다. ‘내가 갇혔을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도 그러했구나’, ‘내가 부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러했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어 악을 행치 않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을 늘 심비에 새기자. 나를 기준으로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면 복은 절로 따라온다. 그 복이 2022년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라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다(요21:15~17). 주의 종들에게 양 떼를 100% 위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모든 권한을 주의 종들에게 위임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양 떼를 잘 지켜 달라 당부하신 것이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권위로, 주의 종은 보이는 권위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분의 말씀을 준행한다 하면서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

히 순종하더니 슈퍼마켓 주인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의 결혼을 반대하던 장인, 장모보다 더 큰 부를 일구어 교회의 모든 새신자를 위해 성경책을 제공하고, 주의 종들을 진심으로 대접하며 로버츠 목사님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는 집회 기간 내내 기사가 떨어진 고급 승용차를 감사 목사님께 제공하고 매일 식사 때마다 직접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대접하며 섬겼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의 말에 철저히 순종한 기적의 성공신화가 아닐 수 없었다.

는 것은 내 성도들이 제발 신명기에 약속된 말씀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실컷 예수 믿는다 하고 왜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이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요,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호4:6). 나는 그날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물을 받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



2011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집회 광경

의 말에 불순종한다면 이는 보낸 자, 맡긴 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로를 그렇게 계획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고로 교회에 보이는 권위로 세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라 할 것이다. 역으로 주의 종은 성도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신뢰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9:23).

지난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과 더반 2차 집회에서 만난 마이크 라만 집사는 대형 슈퍼마켓에서 점원으로 일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로버츠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십일조를 드리라는 말씀에 철저

마이크 뿐 아니라 해외집회 때 목사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사업가들을 보면 동일한 간증을 듣게 된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목사님을 왕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의 히스토리가 궁금해지는데, 백이며 백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며 철저히 순종하고 섬김 결과라는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라”고 가르치셨다. “나에게 잘하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합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라, 전도해라, 말씀 보라, 십일조 해라, 봉사해라 등등 자주 강조하

을 전하는 것이니 부디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대하20:20).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2:13). 2022년 새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라. 이것이 지혜다.

한은택 목사

주일 및 수요일예배 대면예배 안내

집중완료자만으로 70% - 1체육관, 1차 및 비집중자는 30% - 2체육관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7:25~30)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집에 이사했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이 잉태되어야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해가 바뀌어도 매일 그 밤에 그 반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아리수라도 파이프라인이 녹슬었으면 녹슨 물이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열려서 붓물같이 쏟아질지라도 생각이 썩은 자에게는 그것은 부당할 뿐입니다.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썩을 뿐이니까요. 그러므로 녹슨 파이프라인을 갈 듯, 생각을 바꿔야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자! 지금부터 나는 이런 경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예수님이 식사하는 곳으로 찾아와 애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막7:27)며 무시하신 겁니다. 이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안 고쳐줄 거면 그냥 가라고 하지, 개라뇨?” 하며 버럭 화를 냈을 가능성이 큼니다. 아니면 “더럽고 치사해서...”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의 수치를 참지 못해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여 옴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막7:28)라며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포기하지 않더니 결국 그 꿈을 이뤄내고 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다는 것을, 자존심을 버리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존심 따위는 버립니다. 요즘 정신없이 뛰는 대선후보들을 보십시오. 국민들이 별별 소릴 다해도 그들은 한 표를 위해서 그 앞에서 웃고, 옆드려 조아리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존심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목적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소경 바디매오도 반드시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주위에서 ‘조용히 해라. 날 때부터 소경이고, 거지 주제에 왜 이리 소란이나!’고 핀잔을 줘도 개의치 않고 예수를 목청껏 불러 소원을 이뤘고(막10:46~52),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자도 자존심을 버리고 친구에게 강청하여 목적을 이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존심을 세우려면 때론 자존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즉 자존심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자

존심을 챙길 것인가, 자존심을 버려 목적을 이룰 것인가! 당신의 생각에 따라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름도 없는 과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뾰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억울한 일을 당한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해결할 방법을 찾겠지만, 그녀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는지라 안하무인인 줄 알면서도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매일 그곳에 찾아가 하소연을 하지만, 그 재판관은 언제나 콧방귀만 뀌 뿐입니다. 열 번, 스무 번... 그래도 재판관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할 만큼 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99.9%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만들 것입니다. 주위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만 포기해.’라고 말했을 거고요.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필코 정신’이었습니다. ‘해내고야 말겠다’,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번, 40번... 그러자 냉정한 재판관도 지쳤습니다.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아휴, 저렇게 독하고 질긴 여자는 처음이다.” 하고 손을 들었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지요. 그의 키는 평균 이하였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갔지만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키가 작은 걸 어쩌겠어. 그냥 들어가지.’ 했을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도 과부처럼 기필코 정신으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온 네 친구 이야기도 해볼까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 네 명의 친구가 연합하여 예수님 곁에 가려하였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신이 당했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친구야, 도저히 방법이 없다. 다음에 하자.’ 했을까요? 아니면 이 네 친구처럼 ‘방법을 찾아보자.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했을까요? 저는 부디 여러분이 후자를 택하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가 샘솟고, 목적을 이룰 방법을 결국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필코’ 정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사가 그리 호락호락합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됩니까? 근성을 필요로 할 때가 되레 많습니다. 근성, 이것이 ‘기필코’라는 정신입니다.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얻겠고, 찾아라 그러면 찾겠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번까지 구하고, 몇 번까지 찾고, 몇 번까지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기필코 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10:38~39).

아قام도 압북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기를 청했으나 아قام은 축복을 받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며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이 정신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졌습니다. 그래서 아قام을 축복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창32:22~32).

이런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혹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응답이 바로 안 오면 그만 두고, 문을 조금 두드리다가 안 열리면 그만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일 그 신세인 겁니다. 기필코 정신을 가지세요.

필요와 기필코는 부자(父子)관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9:23)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살리려면 나뭇잎을 쳐낼 것이 아니라 썩은 뿌리를 쳐내야 하듯, 맑고 깨끗한 생수를 마시려면 녹슨 파이프라인을 교체해야 하듯 근본인 생각을 바꿀 때 인생이 살아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생각하면 핑계만 떠오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고야 만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만인과 만물을 들어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세요. 그러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잠23:7).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2022, 새해를 맞아 예수중심교단 목회자들의 신년사를 듣는다

최고로 기억해주시는 주님



누군가 나를 기억해준다면 정말 행복한 것이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나다니엘의 영혼의 기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예배와 전도도 불가능했던 안타까운 마음이 었지만 다시 또 새해를 계획한다. 코로나

19도 새해에는 반드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해주셔서 지교회를 이전하고 수리하며 열심히 한 해를 달려왔다. 지교회 수리가 끝나면 항상 카카오톡에 공사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사진과 함께 올린다. 그 이유는 함께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해온 특공대의 주의 종들과 물질로 헌신해주신 손길들에게 헌신의 결과와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작은 표현이다. 아울러 봉사의 손길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간혹 카스토리에 오른 것을 보고 자기 자랑하여 하늘의 상을 모두 잃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랑의 염려라고 생각한다.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하명하심으로 전국의 지교회에 다니며 최선을 다하여 일하던 중 나의 부주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수술하고 치료 중이다.

주님께서 잠깐의 휴식을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전처럼 함께 몸을 쓰며 일할 수 없지만 입으로 하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대로 현장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일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들고 가난한 사람, 부자 그 누구나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막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간다.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본다.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하든 부족할 뿐이다.

2022년 새해, 내 나이가 벌써 70, 주님께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오늘도 헌신하며 기도하고 목회에 최선을 다한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꿈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꿈을 버렸다. 주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을 버렸다. 주님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외치신다. 초등학교일 때 다니던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 성전 바닥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어 나도 이다음에 크면 꼭 교회를 짓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내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수년 동안 전국의 지교회를 수리하고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심으로 꿈을 이루어주셨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사용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의 상을 바라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나와 나의 모든 가족들과 후손들도 힘을 다하여 충성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달려갈 것을 다짐한다.

아산예수중심교회 박인덕 목사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맙시다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창수와 같은 고난이 모든 인류를 위협하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바이러스의 공격이 이렇게 만 2년을 지속될 거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업종의 종사자분들과 많은 교회들이 다 힘든 싸움 중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신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짓든 비바람과 창수는 가리지 않고 부딪힐 것이라(마7:24~27) 예수님의 말씀이 새삼 가슴으로 와 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에게는 반석 위의 집이라 위기가 기회요 요동치 않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는 말씀 붙잡고, 비록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늘을 침노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코로나 확진자가 될 수 있고, 누구

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확진자로 판정되어야 치료가 시작되듯 죄를 죄로 인정해야 회개와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험한 시련의 창수가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당한 비바람과 창수라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험한 파도는 유능한 서퍼에게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주고 항해하는 선장에겐 그의 노련함을 나타내는 기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1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2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고 매사 최선을 다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 봅시다.

확진자보다 오진자가 더욱 두렵습니다. 확진은 치료의 시작이지만 오진은 나도 죽고 상대도 전염시키는 전파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확인하는 데는 매우 예민하지만 정작 자신 내면의 깊숙한 죄들은 회칠하듯 포장하고 합리화하여 오진하기에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제가 섬기는 교회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초신자들은 가족들의 만류로 교회에 오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교회 일꾼들이 시험에 들고 직분자들이 함께 교회를 떠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가슴이 새카맣게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

개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며 억지도 부려봤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였고 그동안 스스로를 오진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정직하게 제 자신이 영적 바이라스의 확진자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가 깊은 회개로 이어지고 시시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가르쳐주시고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며 1년 6개월이 넘는 긴 시련의 터널을 통해 영적 바이러스를 치료해주셨고 회복과 내면의 성장을 주셨습니다. 이전엔 얇은 물기였다면 깊이와 넓이 있는 그런 마음을 사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불충성과 바리새인 같은 외식들을 용납하고 있었는지 직시하게 되었고 자신을 확진자로 인정하기까지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귀가 주입한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찌든 때와 같습니다. 고치기가 매우 어렵고 습관이 생각보다 빠르듯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것들은 집중적인 회개와 내면 깊이 자리 잡은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 서서히 고쳐집니다. 잘못된 생각을 정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마귀는 스스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게 속이는 존재인입니다. 순간 외식으로 끝만 온전한 척

회칠하게 합니다. 속지 말고 스스로 진실하게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큰 시련의 창수로 교회가 위태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성장과 거룩함으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을 압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떤 빛도 볼 수 없었던 암담한 창수와 시련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었고, 그 사건 이후로 매일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좋은 습관도 주셨습니다.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며 짙은 어두움이 저로 하여금 오직 빛 되신 예수께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장이나 공연장에서 시작과 함께 관객석의 등을 모두 꺼버리는 이유는 주변을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영화나 공연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 것들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인생가운데 짙은 어두움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남에게 말 못할 고통가운데 괴투성이기 되었을지라도 살아있어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은 곧 항상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18:8).

전북예수중심교회 김영종 목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코로나 시대 사명은 무엇일까요?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연못 속에서 커다란 고기가 헤엄칠 때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우리 침대 위에 누워있다면 우리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논밭에서는 꼭 필요한 흙이 방바닥에서는 뒹아내야 할 더러운 것이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버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견고함과 인내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제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역할을 해낼 때입니다. 자식 똥은 구수하지만 부모 똥은 구수하지 않습니다. 살아온 독으로 노쇠한 장기 기관이 만들어내는 냄새이기 때문이지요. 자식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고 노력 안 해도 되지만, 부모 사랑은 노력하고 애써야 가능한 게 자식된 사명입니다. 얼마 전 노령의 집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며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족은 멀리 계시고 코로나로 인해 아내 권사님도 병환으로 간호를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목사가 간병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찬송 불러 드리고,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만 심어드리면 다한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다가와 하는 말이 “기저귀 갈아주세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지만 ‘갈면 되지.’ 시도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 대변이 손에 묻고 난리가 났습니다. 겨우겨우 마무리 짓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하는 말, “자~관장합니다.” 펜탈 붕괴가 이런 건가? 다시 처음부터 기저귀를 갈고 누워있는 집사님께 “이제부터 우리는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입니다.”라며 웃으며 갈아드립니다. 아직도 손톱 밑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기분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럽고 힘든 일이지만 ‘내 자식은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하

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되지. 방언 해봐요. 탈탈탈라. 집사님, 나랑 같이 좀 있다가 천국 가면 안 될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집사님, 그럼 천국에서 봐요. 잘 가요.” 혈압이 떨어지며 잠자듯이 천국 가는 모습에 기도했다. “주님~ 나도 저렇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성도, 내 아버지 끝까지 섬긴 후 뿌듯한 마음, 목사의 기쁨이 이런 것인가요? 임종을 지키며 낙원에 잘 보내드렸는데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니 유가족들께서 고맙다고 인사하시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들 이래요. 난 이게 직업이고, 목사가 당연히 할 사명인데.” 너무 민망해서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놈이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직업 좀 가지세요.” 황당해서 “아빠는 목사가 직업이야.” 다시 말한다. “아빠! 목사는 봉사자 직업이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게 직업이지.” 너무 맞는 말이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지, 주님의 은혜 받아 생업을 포기하고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거지. 하지만 아들이, 주님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봉사하면 직업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단다. 조금만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 간증

할 날이 올 거니까.’ 죽어서만이 받는 상이 아닌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아 꼭 믿음이 약한 둘째 놈을 설득하려고 다짐합니다. 사명을 순교, 순직, 대단한 희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에 코로나 시대에 무기력해지고 사망자들이 우울해집니다. 주님은 큰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살리고 수백 명으로 부흥시키라고 안 하시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든 작든 내 앞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하고 우울증 걸린 영혼, 귀신들린 영혼, 알코올중독에 헤어나지 못하는 영혼, 주님이 붙여주시고 맡긴 양을 잘 돌보면 그게 제일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봉사해주는 지구상의 가장 축복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목사는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천국 갈 때까지 보살피는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허물 많아도 용서하시고 같이 천국 가는 간부(친구)라 생각해주세요.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붙여준 목사에 대한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 서로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 받는 사망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산예수중심교회 최연식 목사

영혼의 건강을 지켜라



우리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젊어서 암으로 아내를 잃으시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심방을 가면 늘 어두운 눈에도 성경을 읽고 계시고 집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시며 사십

니다. 그 흔한 노인정이나 노인 사회복지관에 나가 세상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늘 성경을 보시며 지내십니다. 매주 수요일예배, 주일예배도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고, 한번, 두 번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벌써 7, 8개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도 아랑곳없이 예배에 나오시다가 근처에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생기셨다고 안 나오시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이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맞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분 영혼의 건강입니다. 요즘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떡하

면 코로나로부터 더 안전할까! 좋은 백신은 무엇인지, 좋은 치료제가 무엇인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건강입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창궐하기 전부터 우리 영혼을 노리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엡6:12),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코로나 환자와 접촉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 감염 여부를 판단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 자가 검진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전도에 대한 열망의 마음이

내게 남아있는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길 ‘불 꺼진 다음에 기름 붓지 말고 불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시 영혼의 총명한 기름을 부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한해가 저물고 2022년 새로운 한해가 온 것처럼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웅크렸던 개구리가 다시 더 높이 뛰어오르듯이 새해에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됩시다. 전심전력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합시다.

강릉예수중심교회 김상복 목사

Good News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쥐꼬리만 한 이성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길은 막힌 길이요, 끊어진 길입니다. 길이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건져내 줄 구원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보혈의 피 값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철학이나 종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화평 목사**